

마음의 얼룩 지우는 '책의 위로'

윤정은 작가 '메리골드 세탁소'
전남대 '올해의 한 책' 선정
작가 특 콘서트·문학기행 등 계획



윤정은 작가

사람들은 가끔 후회를 한다.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등 후회를 한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쩌면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일 터다.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후회'를 한다는 점이다. 그 후회는 오랫동안 내면에 '마음의 얼룩'으로 남기 마련이다.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북로망스)는 마음의 상처를 살피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온라인서점 선정 2023 소설 베스트셀러 1위', '영미권 포함 20개국 수출 계약 진행'이라는 문구가 보여주듯 소설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세탁소'가 '올해의 한 책'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최근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를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하고 선포식을 열었다. '올해의 한 책'은 광주전남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전남대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이에 앞서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4월 교수, 도서관 사서 등 14명으로 구성된 한 책 선정위원회의 결을 거쳐 후보도서 5권을 선정했다. 5권의 후보 책을 토대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달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를



최근 열린 전남대 '올해의 한 책' 선포식 장면. <전남대 제공>

최종 '올해의 한 책'으로 뽑았다.

무엇보다 소설이 내재하고 있는 "마음의 얼룩을 마법처럼 지워드립니다"라는 주제의식이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듯하다. 사실 마음의 얼룩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소설에는 판타지적이면서도 힐링적인 요인이 곳곳에 투영돼 있어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어떤 경우보다도 마음 한구석을 파고든다.

"어떤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만 살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는 힘으로 살기도 하지.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이들은 꽤나 용감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깊어 있다. 깊어 있는지도, 아픈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아픈 상처 한두 개쯤은 치유해주어야 살 만해진다.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간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저자인 윤정은 작가는 2012년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소설 부문 은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실은 이 말이 듣고 싶었어' 등을 펴냈으며 네이버 오디오클럽 '윤정은의 책길들'을 진행 중이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서사는 신비로운 세탁소를 모티브로 전개된다. 강마른 체구의 여성은 세탁소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인다. 흥미롭게도 차를 마신 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낸다. 아픈 날의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을까.

한편 후보에 오른 도서는 '최재천의 근중사회' (최재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강용수),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이수연) '슬픔의 방문' (장일호) 등이다. 이들 4권은 '올해의 한 책'과 함께 읽어도 좋을 동반도서로 추천됐다.

임여진 학술정보지원과장은 "한 책 선정에 계기로 이후 작가 초청 특 콘서트, 한 책 도서교환전, 독서후기 공모전, 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독서 관련 행사들이 매개가 돼, 지역의 독서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의 계절, 우리 소리를 그리다

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3' 9월까지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

전남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 3로 돌아온다. 이번 시즌 주제는 '소리의 계절, 우리의 소리를 그리다'.

그린국악 시즌3는 오는 6일부터 9월 말까지(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남 무안군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조용안 예술감독 취임 후 첫 시즌으로, 오는 20일부터 3주간 펼쳐지는 '전통 시리즈' 등이 이목을 끈다.

20일 첫 무대는 '판소리 연창 시리즈'로 춘향가 '이별가 대목', 흥보가 '제비노정기 대목', 수궁가 '도끼, 자라 만나는 대목' 등이 이어진다. 또 적벽가 중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인기 있는 대목들을 엄선했다.

'전통 무용 시리즈'는 오는 27일 선보인다. 태평무부터 살풀이, 화선무, 승무, 진도북춤 등을 선보이며 국악단 무용부 단원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8월 10일에는 '전통 기악 시리즈'가 관객들을 만난다. 가야금 산조와 해금, 거문고, 대금, 아쟁 등을 연주하며 국악단 기악부 단원들의 허튼 기악으로 채워진다.

이 밖에도 남도민요 '육자배기', 가야금 병창 '화룡도', 국악 실내악 '적남', '간'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이만기악 시나위 합주 'Hunger Stones'



그린국악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등 조 감독이 취임 간담회에서 밝힌 '우리 소리의 기본과 원초적 특질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소리의 본향인 전남에서 전통의 기본에 충실한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전통 예술의 뿌리를 지키면서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 나가는 그린국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관람료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

광주KDM+,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3관왕'

디자인진흥원 실무형 프로그램...정혜원·박상우·김지민 본상 수상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KDM+(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 회원들이 출품한 디자인 3개가 본상을 수상했다.

KDM+는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이 디자인 인재를 뽑아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현장실무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정혜원, 박상우, 김지민의 작품 3건이 본상을 수상했다.

정혜원이 수상한 헤어드라이어(U-DRY)는 손잡이가 없는 벽걸이형 디자인으로, 머리를 편하게 말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특징이다.

박상우의 '선풍기 디자인(Breeze through the gaps)'은 기존 선풍기와 달리 '틈새'로 나오는 바람을 영감으로 디자인했으며, 김지민의 '봄(Bom)'은 수어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AI 디바이스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송진의 원장은 "이번 레드닷 어워드 본상 수상은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DM+ 회원들의 디자인 역량을 세계 디자인 무대가 인정했"이라며 "앞으



김지민 작 'Bom'

로도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55년 창설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 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심사하며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정평이 나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 대표 도학자 '이항' 학문과 사상 고찰

한국학호남진흥원, 내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

이항(1499-1576)은 호남에서 성리학을 키우고 정립했던 도학자다. 그의 문집 '일재집'은 사후 100여년이 지난 1673년 사문집으로 발간된 바 있다. 그는 당대 대학자인 기대승, 김인후 등과 교류하며 후학 양성과 학문발전에 이바지했다.

홍지필은 '매산집' (梅山集)에서 '호남의 5명 학자'로 김인후, 기대승, 안방준, 박광일과 함께 이항을 꼽을 만큼 학문이 깊었다.

호남 대표 도학자인 이항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

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오는 4일(오후 1시 30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일재(一齋) 이항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항이 추구한 학문과 사상을 깊이 연구해볼 수 있는 자리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나상필(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회로 오보라(고려대)가 '일재 이항의 학문 위상과 교류

양상'을 발표한다. 이어 안유경(경북대)이 '이항의 성리학적 특징 고찰', 이종근(새전북신문)이 '이항과 정읍 남고서원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부 종합토론에선 김창호(원광대)를 좌장으로 최혜미(충북대), 이형성(전남대),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참석자 선착순 100명에게 국역본 '일재집' 1책과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홍영기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호남의 대표 도학자인 이항의 학문과 사상을 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국역을 활용한 문화원형 콘텐츠 발굴, 활용 등을 매개로 자료의 가치와 의미 등을 지역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